

News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금리에 '금리노마드' 떠난다...잔액 두달째 마이너스

뉴스1 <https://bit.ly/3AxPCY4>

KB·신한 등 주요銀 25일까지 전월말 대비 1조원 감소
요구불예금은 5.5조원 줄어...4월 증시 박스권 돌파 등 투심 작용 영향

기준금리 3%p 오르는 동안 은행 가산금리 1.75%p 낮췄다

머니투데이 <https://bit.ly/40HBOVp>

기준금리가 3%포인트(p) 오르는 동안 주요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평균 1.75%p 낮춤
모든 상품과 차주에게 적용된 일괄적인 인하 조치만 뽑아 계산한 결과

'우량' 한전채-MBS 이어 은행채 쏟아져... 일반 회사채들 울상

동아일보 <https://bit.ly/3nb9Gwf>

2분기 만기 은행채 1년새 30% 늘어, 차환 이어져 시장 자금 빨아들일 듯
건실 회사채는 미매각 속출 '고전', "회사채 양극화 연내 계속될 전망"

토스뱅크가 시작한 '지금 이자 받기'... 카카오뱅크까지 합류

머니S <https://bit.ly/40HXbWN>

카카오뱅크는 최근 세이프박스 특약을 개정
특약 개정에는 이자 지급 시기를 '고객이 요청한 날'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김

메리츠화재 등판에...車보험 경쟁 심화하나

뉴스S <https://bit.ly/3LcKjSz>

손해율 2년 연속 하락...2년 새 4.5%p 개선돼
메리츠화재, 중소형사 중 유일하게 점유율 상승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논의 '시동'...중계기관 선정 '걸림돌'

데일리안 <https://bit.ly/3n7xqS0>

보험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
여야 모두 법안 자체에 대해 공감, 중계기관을 어디로 선정할 것 인지는 이견

금감원, 28일 증권사 사장단 전원 소집...빚투 리스크 관리 당부

뉴스S <https://bit.ly/3HEJqBF>

금융감독원이 34개 국내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해 '빚투' 리스크 관리를 당부할 예정
최근 코스닥 과열 종목을 중심으로 빚투가 급증해 신용 리스크 관리가 업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ELS·DLS 7조원어치가 손실구간 진입...연환산 수익률도 하락

한국경제 <https://bit.ly/41EYM0F>

작년 말 손실기준 아래로 떨어진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총 7조3000억원, 파생결합증권 잔액의 7.1% 수준
이중 7조2000억원어치가 주가지수 등의 가격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